부처의 열반과 역사 직조하다

박찬경 개인전 '모임(Gatherintg)'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현대미술관(서울)

10월 26일~2020년 2월 23일

영화 '늦게 온 보살' 등 9점 전시

해인, 곽시쌍부 등 미술에 녹여

사진 · 시멘트 판 등 다양한 재료

분단, 냉전, 민간신앙, 동아시아의 근대성 등을 주제로 한 영상, 설치, 사진 작업으로 국내외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박찬경 화가는 10월 26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 서울에서 개인전 '모임 Gathering' 을 개최한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작 '늦게 온 보살' 을 비롯해 '작은 미술관',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 '맨발', '5전시실' 등 총 8점의 신작과 구작 '세트' 1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액자구조' 로 되어 있다.

△전시장 입구 쪽에 설치된 '작은 미술관' 은 이번 전시의 액자 역할을 한다. 작품은 벽, 사진, 대여한 미술 작품, 글, 병풍, 단채널 비디오(15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작은 미술관' 은 개념적인 측면뿐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에서의 작은 미술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은 미술관' 은 낯선 시간대와 낯선 거리에서 바라보도록 한다. 작품은 오늘날의 미술사와 미술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술제도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성찰은 '재난 이후' 라는 주제 아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석가모니의 열반 등을 다룬 작품으로 이어진다.

△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 는 원전사고 피폭현장인 마을을 촬영한 박 작가의 사진과 방사능을 가시화하는 일본 작가 카가야 마사미치의 오토래디오그래피 이미지가 교대로 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과 '세트' (2000)가 나란히 전시되는데, 서로 다른 소재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접점을 찾는 박 작가 특유의 미술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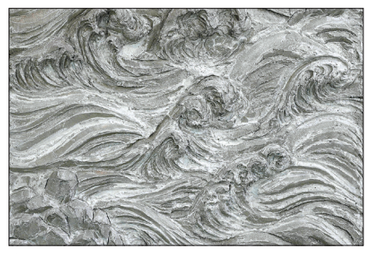
△전시실 중앙에 넓게 펼쳐진 '해인(海印)' 은 다양한 물결무늬를 새긴 시멘트 판, 나무마루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미술을 '미술에 관한 대화' 라고 규정하는 작가의 예술관처럼 비어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모임' 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찬경 作, '맨발' 中 디지털사진.

작가는 오늘날에서 '해인' 의 뜻을 생각할 때, 온 세상의 반영이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인터넷 매체나 빅데이터라고 생각했다. 작가는 천무학적인 규모의 '빅데이터' 대신 거의 전달하는 것이 없는 '스몰 데이터', 가볍고 빠른 데이터의 재생 대신 지나치게 육중하고 단단한 시멘트 덩어리의 바다를 통해 오늘날의 데이터 만능주의에 답한다.

△ '해인' 에 이어서 55분 분량의 영화 '늦게 온 보살' 이 이어진다. 이 영화는 '석가모니의 열반' 이라는 종교적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라는 재난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흑백 네거티브의 영상은 '후쿠시마, 오토래디오그래피' 와 짝을 이루며 광선, 대기, 방사능, 자연 등에 대해 우리가 관습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를 뒤집도록 유도한다. 영화의 섬세하게 조절된 톤은 그 배경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장소라는 설정과 묘하게 마찰을 일으킨다. 등장인물들은 내러티브 바깥을 떠도는 것처럼 보이며, 서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뒤섞이는 산, 불교 신화, 원자력 발전소, 미술 등의 이미지는 줄거리의 개연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개연성을 잃어버린 사회를 묘사하는 것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관객은 이 영화를 보고 위대한 성인의 열반, 각자의 죽음에 도달하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생겨나는 '모임' 등을 생각하게 한다.



'해인' 中 일부.



'해인' 中 일부.

△전시실 후반부에 설치된 '맨발' 과 '모임' 등의 작업은 앞선 영상 속 소재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맨발' 은 부처님의 열반 당시 곽시쌍부의 고사를 소재로 '둘' 의 이미지를 다루고 있다. 종교적, 문학적 분위기의 '생략' 을 통해 '둘의 미학' 이 갖는 시원적인 단순함, 맨발을 내보이는 사건의 사소함이 고사의 메시지를 더 명료하고 현대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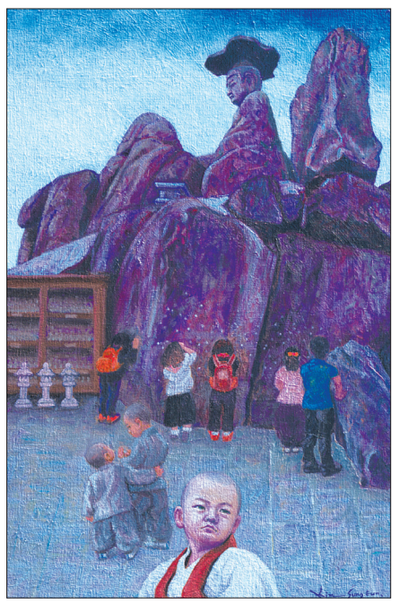
전시실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5전시실의 1:25 배율 축소모형 '5전시실' 이 놓여있다. 작품은 '액자 속 스토리', 즉 미술관의 관람 관습에 익숙해진 관객을 다시 액자 밖으로 끌어낸다. 이로부터 작가는 관객에게 미술과 미술관이 같아 보이는지 묻는다. 작가는 강요된 권위와 틀에 저항하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깨어있는 관객들이 곧 이번 전시의 제목인 '모임' 에 초대받은 이들임을 이야기한다.

박찬경 화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97년 첫 개인전 '블랙박스 : 냉전 이미지의 기억' 을 시작으로, '세트' (2000), '파워통로' (2004~2007), '비행' (2005), '반신반의' (2018) 등 한국의 분단과 냉전을 대중매체와의 관계나 정치심리적인 관심 속에서 다뤄왔으며 주로 사진과 비디오를 만들었다. (02)3701-9500.

김성은 개인전 'Hello, my Buddha'

대구 동화사 법화보궁 전시실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Hello, my Buddha, 90×60cm.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 주신다는 갓바위부처님. 바위산 솟아날 적부터 나투어 계신 부처님. 간절함에 약사여래불 읊조리며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오른다."

갓바위부처님을 마음껏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김성은 화가는 11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대구 동화사 법화보궁 전시실에서 개인전 'Hello, my Buddha'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전시되는 그림들 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갓바위 부처님이 그려져 있다.

"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을 비롯한 주변 뭇생명들의 존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은 주변의 많은 것들 또한 내 삶의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형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들 생명의 존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표현한 그림들이다. 작가는 우리들의 힘겨운 삶 속 어딘가에는 해맑은 미소가 있을 것이란 소망과 믿음으로 갓바위부처님과 함께 동자승을 그렸다.

불자로서 삶에서 느꼈던 것들의 표현이다. 작가는 자신이 삶에서 느끼는 환희심을 동자승의 맑고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전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부처님.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팔공산 갓바위. 매일 지팡이에 의지해 무거운 발을 힘겹게 내딛는 할아버지, 기어오르듯 계단을 오르는 할머니. 작가는 매일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이 갓바위부처님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마음을 느끼길 바란다.

여명 속에 서있는 갓바위부처님, 부처님전에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여인, 부처님 마당에서 해맑게 뛰노는 동자승, 모두 작가의 소망이다. 박재완 기자

墨으로 그린 禪의 세계

박주남 '墨으로 만나는 禪' 展

보령 갤러리 탑 11월 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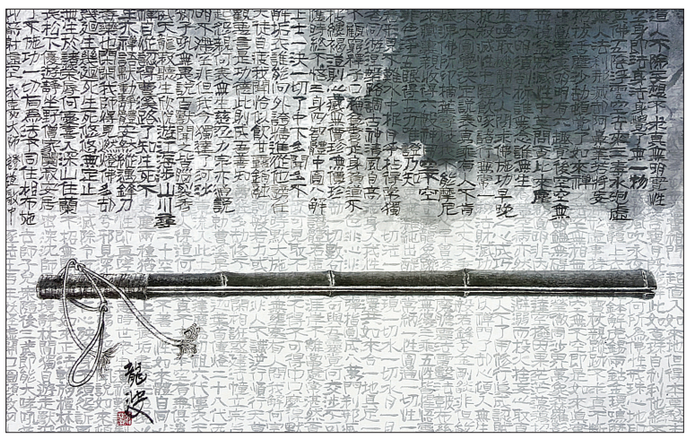
선(禪)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선을 수묵화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일까. 그동안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산수화 · 불화 등 다양한 수묵화를 그려온 박주남 화백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충남 보령시 갤러리 탑에서 초대전 '墨으로 만나는 禪' 을 개최한다.

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한 이번 전시의 그림들은 정토사상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그 실천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장군죽비를 소재로 한 작품 등 27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그림들은 박 작가의 선에 대한 고민과 표현으로, 그림 속에는 선의 세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죽비를 비롯해 빗자루, 발우 등이 등장한다. 또한 이번 작품들 속에는 탁본 형태의 문자들과 직접 써넣은 문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등장한다. 그 문자들은 〈금강경〉, 영가 스님의 '증도가', 〈초발심자경문〉, 〈선가귀감〉 등이다.

박 작가는 "이번 초대전은 2017년 개최한 墨, 禪을 만나다' 의 연장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장군죽비에 가지와 잎을 더해 여전히 살아있음을 표현했다"며 "많은 여백만큼 관객들이 작품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선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남 작가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4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35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041)931-7688. 박재완 기자



박주남 作, 장군죽비.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